

자신있게 날아라 | 내일 무주서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에 한창인 무주에서는 8일과 9일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패러글라이딩은 무주로! 패러글라이딩으로 자신 있는 삶을 이라는 주제의 2018 무주군체육회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주최 무주군체육회, 주관 무주군패러글라이딩협회)는 패러글라이딩 종목을 활성화하고 동호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전국에서 250여 명의 동호회원들이 참가해 무주의 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대회는(이륙-무주읍 향로산 반딧불활공장, 착륙-무주읍 남대천 고수부지) 조종사부와 연습조종사부, 단체부 경기로 진행되며 순위는 2일 간 각 부 선수가 자유 비행해 최고 고도로 올라간 성적으로 결정된다.

대회 관계자는 "무주가 패러글라이딩하기 좋은 곳이라는 명성을 재확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마침 또 반딧불축제 기간이라 참가하는 선수나 축제장에 온 관람객들 모두 특별한 추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 반딧불활공장은 지난 1997년 무주읍 향로산 일원에 500㎡규모로 조성된 곳으로, 연간 3,000여명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취미활동과 대회 참가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인근에는 향로산 자연휴양림(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 일원, 063-320-2416)이 조성돼 있어 연계 이용도 가능하다.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산림문화와 휴양, 체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숙박 등 편의시설과 체험, 모험시설(모노레일)등을 갖추고 있다.

무주군청 환경산림과 김승준 산림조성 담당은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연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반딧불활공장을 방문하는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들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무주가 항공스포츠와 산림관광의 메카로 제대로 알려지고 또 이용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시설 홍보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반딧불축제 막바지에 개최 동호회원 250여명 참가 조종사부 등으로 진행

“병역? 한마디도 안해... 오직 승리에 초점”

김학범 AG 축구대표팀 감독

“선수들에게 병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기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췄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의 아시안게임 2연패를 지휘한 김학범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가 대회를 결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감독은 6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결산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전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대회 중에) 병역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기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췄다”고 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71위 말레이시아에 1-2로 패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토너먼트에서 이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일본을 차례로 제압하며 정상에 올랐다.

특히 우승후보로 평가된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이 힘겨웠다. 열차리뒤치라 승부 끝에 극적으로 4-3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김 감독은 눈시울을 붉혔다.

김 감독은 “우즈베키스탄이 정말 좋은 팀이라는 걸 느꼈다. 버거운 경기였다. 역전에 재역전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정말 힘들었다”며 “이겼지만 칭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김학범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찬하지 않고 많이 혼냈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이 경기가 준결승, 결승전에서 좋은 경기로 이어진 계기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의조(감바 오카사) 선발 논란에 대해선 “실력 실패한 순이었지만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황의조는 앞으로 성인대표팀에서도 많은 활약을 할 것이다”고 했다.

김 감독은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지도한다.

그는 “아시아의 경쟁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거스 히딩크 감독을 영입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격정스럽다. 잘못하면 망신당할 것 같다”며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를 보였다.

/뉴시스

대한축구협회 ‘추적 60분’ 보도 반박... “법적 조치 검토”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방송을 통해 보도된 부정 의혹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보도자료 형태의 반박문에서 5일 KBS 추적 60분에서 방송된 ‘그들만의 왕국, 정가네 축구협회’는 편향된 시각과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존중한다. 축구 발전을 위한 예정어

린 질타는 언제든 수용하며,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며 “그러나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된 비난이나, 악의를 갖고 하는 허위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여러모로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시스

베컴, 美프로축구 구단주 되다... 구단명 ‘인터 마이애미’

영국의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43)이 창당한 축구단의 이름이 ‘인터 마이애미’로 확정됐다.

영국 BBC는 베컴이 구단주로 나선 미국메이저리그사커(MLS) 새 구단명이 인터 마이애미로 결정됐다고 6일(한국시간) 밝혔다. 인터 마이애미는 2020년부터 MLS에 뛰어들 계획이다.

베컴은 “나 스스로와 팀 전체에게 자랑스러운 날이다. 팬들에게 새 구단명을 발표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 오늘은 우리 팀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뿌듯해했다.

베컴은 선수 시절인 2007년 MLS 소속팀인 LA 갤럭시시로 이적할 때부터 창단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계약서에 MLS에 진출하면 추후 25% 할인된 금액으로 MLS 구단을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도 했다.

한편 영국 익스프레스는 인터 마이애미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웨인 루니,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등의 영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2018 대한민국 대표축제 축제전주매일창간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제22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축제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1 (토) ~ 9.9 (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45 · 문의, 063)320-5004~17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